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노덕현 기자 | 입력 2021.10.13 13:22 수정 2021.10.13 18:42 댓글 0



10월 13일 천리순례단 14일차 순례 성료

영산 고갯길 힘모아 넘어
일일참가자 30여명 동참
지원팀 안전에 만전 기해



천리순례단이 영산면에서 부곡으로 향하는 영취산 고갯길을 넘고 있다.

경남에 진입한 천리순례단이 10월 13일 부곡에 당도했다. 전날 숙영지인 창녕 이방면을 새벽 4시 출발한 천리순례단은 오전 7시 장마면을 거쳐 오전 9시 경 영산면에 들어섰다. 영산면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다는 영취산(해발 738m) 자락에 위치해 붙여진 이름. 영산 자락에서 순례단의 발걸음이 지나는 의미는 커져만 갔다.

깨달음을 상징하는 부처님 성지로 향하는 순례기에 천리순례에는 중반부로 갈수록 점점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이날 순례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재단 시설협의회장 법일 스님, 국제선센터 법원 스님을 비롯한 30여명이 일일참가자로 순례단의 뒤를 따랐다.

최신뉴스

10.27법난 41주년...군학발 짓밟힌 스님
법석 봉행



유네스코 네트워크 뮤직페스티벌 폐막공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 회원전 개최



박은아 강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사회
실천가대상



과천시약사회,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도시
원



인기뉴스

- 1 절터 복원·명상...‘메타버스’ 빠진 불교
- 2 교학·후학양성 매진한 대강백 종광 스님
- 3 조계종 최고 품계 대중사명사 품서식 봉
- 4 '상월결사정신' 청년포교로 전개
- 5 흥법사,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임직원들이 장마면 휴식지에서 순례단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일일참가자로 참여했다.

재단 시설협의회장 법일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에 재단과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이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동참인연 공덕으로 불교 포교와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순례를 진행했기에 진행팀과 안전팀의 긴장도 높아졌다. 순례단 행렬은 지역관할 경찰서에서 경찰 차로 에스코트 하고, 앞뒤로 동국대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팀에서 행렬을 안내한다. 특히 안전팀은 도보로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순례단을 보호한다. 순례 구간에는 도로공사 중인 곳이 많고, 주변 산업공단에 출입하는 트럭들이 지나가기에 안전팀은 연신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며 행렬을 통제했다.



첫 휴식지에서 순례단이 쉬는 동안 안전회의를 하는 안전팀의 모습. 총 10명의 안전요원들이 순례단을 외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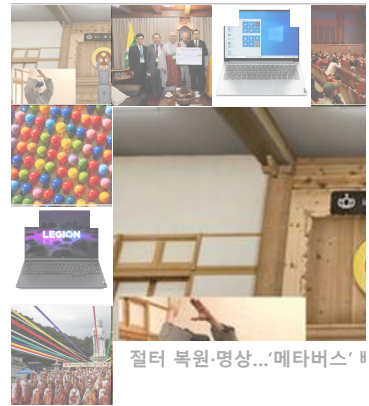
권영섭 안전팀장은 "이틀 연속으로 비에 젖어 지친 순례단이기에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아 특히 유의하고 있다. 경남으로 넘어오면서 덤프트럭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도로폭이 좁아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더 많이 뛰어다니고 있다. 회향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대불교NEWS] 불교중흥



[영상]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절터 복원·명상... '메타버스' Ⅱ



천리순례단의 아침공양을 준비하는 자원팀들이 모습

에스코트를 맡은 이시경 창녕서 생활안전교통과장도 “안전하게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아침부터 나와 돕고 있다.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들어 하는 와중에 순례를 계기로 잘 극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덕곡리를 거쳐 부곡면으로 향하는 길은 나지막한 영취산 고갯길로 이뤄져 있었다. 종반부로 향해가는 순례단 곁에는 자원팀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순례단이 지칠 때면 휴식지마다 물 등을 전달하며 힘을 보탤다.



순례단은 길위에서 자고 먹고 수행한다. 스님들이 아침공양 전 공양게를 외고 있다.

장영욱 자원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례단의 건강”이라며 “행사팀 숙영팀 공양팀 자원봉사팀 등 50여 명이 순례단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사찰 등에서 물품 지원이 많다. 순례단이 활용하고 남은 물품을 마을회관과 지역 단체에 보시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 동안 내린 비로 지친 순례단에서는 부상자가 계속 발생했다. 미끄러운 경계석을 밟고 넘어진 순례단원이 치료를 받고 있다.

휴식지마다 발이 아픈 이들과 다친 이들로 의료팀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명숙 의료팀장은 “물집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다, 체력저하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야영으로 인한 풀독, 피부염으로 병원에 가신 분부터 관절 등이 안좋은 분들도 있다”며 “그럼에도 치료를 받으시고 순례를 계속해나가는 모습에서 불자의 한사람으로 또 다른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곡으로 가는 고갯길 곳곳은 공사현장으로 순례를 이어가기엔 좁았다. 트럭 등 차량 이동이 어느때보다 많아 위험했다.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종흥 대장정 천리순례에는 순례로 걷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었다.

지원단 지도법사 헤일 스님은 “순례대중이 불교종흥과 전법포교를 향한 마음을 이어가는 것만큼 이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끝까지 마음 놓지 않고 화합하면서 잘 마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갈대핀 길을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이 걷고 있다.

이러한 염원을 함께 안고 순례단은 숙영지인 부곡에 도착했다. 부곡 입구에도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나와 순례단을 환영했다.

순례단을 마중 나온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본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처님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하나 하나가 모여 국난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포교가 이뤄지고 모든 국민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볼 때 승려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오늘부터 통도사 권역으로 들어오신 순례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접한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순례단은 부곡에서 정비시간을 가진 뒤 14일 전법포교를 논하는 포교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순례길에서는 안전팀이 도보로 순례단 중간에 함께 걸으며 외호했다.



고갯길 중턱의 휴식처에서 휴식을 취하는 스님들의 모습



순례단이 영산면과 영취산을 뒤로 부곡으로 향하는 고갯길을 넘고 있다.



천리순례단이 부곡 인근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



통도사 본말사 신도들의 환호를 받으며 부곡 회향지로 입장하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과 순례단,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등 통도사 스님들의 모습.



화항지에서 새롭게 불교중흥을 서원하고 있는 순례단 재가불자들



현대불교신문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상월선원](#) [#천막결사](#) [#스님](#)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승스님](#)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볍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삼보사찰 천리순례] 왜 삼보에 주목해야하나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치 되새기다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적 의미

[삼보사찰 천리순례] 단상- 어떻게 걸어야 할까

이시각추천뉴스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나눔

세계 불교영화, 지역서도 선보인다

송광사 불교굿즈 '빨간 목탁' 서울서 만난다

僧匠 색난 조성 불상진관사 태극기 '보물' 지정

“승가회합” 부재 94년 개혁... 종단 세속화 가속”

학교수업심리치유...코로나 극복 논의 '붐물'

연등회기원 '빈녀난타품' 영상으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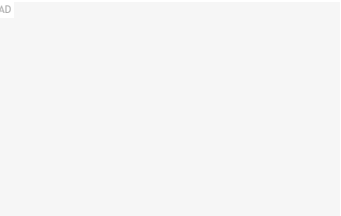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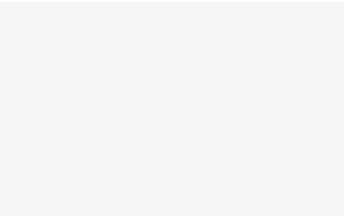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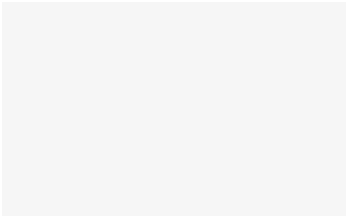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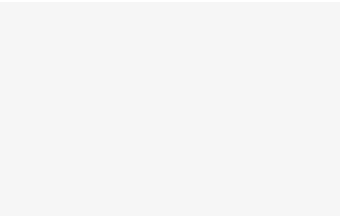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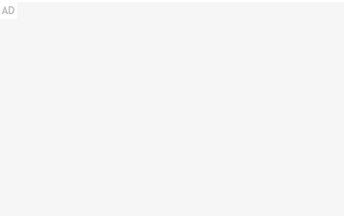
신심과 원력으로 재작산 사자평 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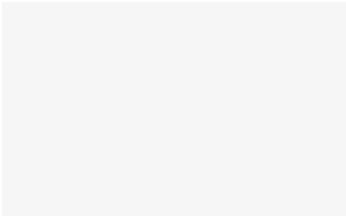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19. 스미 소니언 <지장보살도> ②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제한, 탈종단 가속화 부작용만”



소유진 다이어트하고 살찌는 똥보균 박멸한 A양 화제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템플스테이 체험한 펍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무문 흥법사 앞 도로공사 강제집행에 불상 '산산조각'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있어"

현대불교

UPDATED. 2021-10-27 20:11 (수)

로그인 회원가입
비밀번호찾기 구독신청

제보하기

아이디찾기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해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